

이 콘텐츠는 「콘텐츠산업 진흥법」에 따라 최초 제작일부터 5년간 보호됩니다.
본 콘텐츠의 무단 배포 시, 콘텐츠산업 진흥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본문해설

작품 해석의 팁 : 우리는 모두 바라는 것[하늘]이 있다. 그러나 그 바라는 것은 현실[땅]에서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어쩌면 아주 요원해 보인다. 그리고 정말 자신이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 절망적일 때, 하늘은 뜬어진 것처럼 보인다. 그러다가 화자는 하늘과 땅의 중간에 떠 있는 살구꽃을 보았다. 겨울[힘든 시기]에는 살구나무의 빈 가지로 인해 하늘이 뜬어진 것처럼 보였으나 이제 꽃이 피니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느꼈던 마음의 상처가 봉합되는 것 같다. 그리고 그 소망은 꽃이 될 것이다.

간단하게 말해서 이 시는, 자신이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 마음이 뜬어진 것 같았는데, 살구꽃을 보고 위안을 얻고 바라는 것 자체가 꽃이 되었다는 것이다.

학생 여러분들도 힘든 수험 생활, 생각대로 점수가 잘 안 나와 하늘이 뜬어진 것처럼 보일 때가 있겠지요. 하지만 늦은 밤 귀가하다가 울봄에 피어난 꽃을 볼 때에, 이 시를 떠올리며 조금이나마 마음의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당장은 성적이 잘 안 나온다 할지라도 조만간 하늘에서 여러분의 말소리를 듣고 여러분의 뜬어진 마음을, 여러분의 바람[하늘]을 꽃으로 꺾매줄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 하늘을 바라본다면[이상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하늘을 바라본다면] 그 소망[하늘]이 꽃으로 피어날 것입니다.

이 소설의 독해에서 가장 중요한 것

이 소설의 지문에서는 앞부분의 줄거리가 없기 때문에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가장 난해할 수 있다. 상황을 파악하는 핵심은 이 작품이 '구운몽'을 토대로 쓰여졌다는 것이다. 구운몽의 줄거리는 대략적으로 선계에서 살던 남자 주인공(성진)과 여자 주인공들(팔선녀)가 인간계(양소유와 8명의 처첩으로 환생)로 내려와 사랑을 이루고 부귀영화를 누린다는 것이다. 옥루몽 역시 선계의 남자 주인공(문창성)이 다섯 선녀와 함께 인간계(양창곡, 강남홍, 벽상선 등으로 환생)로 내려와 사랑을 이루고 부귀영화를 누린다.

앞부분의 줄거리

천상에서 살던 신선 문장성과 다섯 선녀는 연꽃을 꺾어 술을 마시며 놀았던 일로 인해 벌을 받고 인간 세계에 떨어진다. 옥황상제는, 문창성은 양창곡, 다섯 선녀는 각각 윤 소저, 황 소저, 강남홍, 벽성선, 일지련으로 태어나게 한다. 한편 명나라의 양현은 뒤늦게 아들을 보게 되어 이름을 양창곡이라 짓는다. 성장한 양창곡은 과거를 보러 가던 중 기생 강남홍과 사랑을 나눈다. 강남홍은 양창곡에게 함주 자사의 딸 윤 소저를 배필감으로 추천하고 자신은 윤 소저의 시녀가 된다. 그러나 소주 자사 황의병이 강남홍을 희롱하려 하자 그녀는 스스로 강에 몸을 던진다. 이를 미리 짐작한 윤 소저가 손삼랑을 시켜 강남홍을 구하지만, 그 둘을 태운 배는 표류하다 남만으로 가게 된다. 강남홍이 자살했다는 소식을 듣고 크게 슬퍼하던 양창곡은 마음을 다잡고 과거에 급제하여 한림학사가 된다. 명나라의 천자는 양창곡에게 황의병의 딸 황 소저와의 결혼을 명하나 양창곡은 윤 소저와 혼인한다. 이 일로 양창곡은 누명을 쓴 채 유배를 가게 되고, 유배지에서 기생 벽성선을 만난다.

하루는 양창곡[선계의 신선, 문창성의 환생]이 벽성선[5선녀 중의 하나]을 찾아갔는데 마침 그녀는 관청에서 불러서 가고 없었다. 양창곡은 무료하게 집으로 돌아왔다. 그는 다시 이런 생각을 하였다.

‘내가 밤에 벽성산을 보았기 때문에 그 진면목을 보지 못했다. 이제 올라가 보아야겠구나.’

그는 동자를 데리고 산으로 향했다. 기이한 꽃과 괴석이 곳곳에 널려 있고, 맑은 시내와 빼어난 봉우리는 골짜기

마다 둘러싸여 있다. 양창곡은 경치를 따라서 그 근원을 찾아보고 싶었지만, 다리에 힘이 다 빠져서 피곤함을 이기지 못하여 바위 위에서 쉬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어디선가 보살[조력자] 한 분이 나타났다. 그는 비단 가사[승려의 옷]를 입고 석장[지팡이]을 손에 들었으며, 꽃 같은 얼굴에 가느다란 눈썹을 하고 단아한[단정하고 아담한] 기운이 서려 있었다. 보살은 양창곡을 보더니 길게 읊[절]을 하며 말했다.

“문창성은 그동안 별로 없으셨소?”[선계의 인물인 보살과 문창성은 선계에서 아는 사이였음]

양창곡이 당황하여 대답을 하지 못하니, 보살이 웃으며 말했다.

“홍란성[강남홍의 선계 이름]은 어디 두고 제천선녀[벽상선]와 즐기시는 게요? 빈도(貧道)[승려가 자신을 낮추어 일컫는 말]는 남해 수월암의 관음보살이외다. 옥황상제의 성지(聖旨)[성스러운 명령]를 받들어 무곡성[무(무력)를 담당하는 신선]의 병서(兵書)[병법책]를 그대에게 전하니, 그대는 널리 중생[백성]을 구제하고 빨리 천상 극락세계로 돌아오시오.”

말이 끝나자 석장을 들어 바위를 후려치면서 높은 소리로 말했다.

“돌아갈 길이 매우 바쁘니 빨리 돌아가시오.”

양창곡이 놀라서 깨니 한바탕 꿈[전기성, 앞일을 암시]이었다. 그런데 자신은 아까처럼 바위 위에 앉아 있었지만, 단서(丹書)[붉은책] 한 권이 눈앞에 놓여 있는 것이다. 양창곡이 놀라면서도 기뻐하며 소매 속에 잘 갈무리하고 내려왔다. 다시 별당[여인이 거처하는 곳]에 들렀지만 벽성선은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 양창곡은 즉시 객관[손님이 거처하는 곳]으로 돌아와 단서를 꺼내 보았다. 과연 천상[하늘나라] 무곡성의 천문 지리와 군대를 부리고 귀신을 항복시키는 비결이었다. 양창곡은 본래 총명한 재주를 가진 터라, 어찌 여러 번 보아서 깨닫겠는가.

[서술자의 개입]

상자 안에 넣어 두고 밤이 깊어 잠자리에 들려고 할 때였다. 갑자기 신발을 끄는 소리가 들리더니, 벽성선이 두 여종을 데리고 달빛을 띠고 이르렀다. 그 아리따운 자태는 달나라 향아[선녀]가 광한전[궁궐]에서 내려온 듯, 은하수에 직녀가 견우를 찾아온 듯하였다. 양창곡은 정신이 흔들리고 마음이 황홀하여 자신이 속세의 인물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였다.

(중략)

양창곡이 웃으며 말했다.

“내 정말 무료하여 그대를 찾아가는 중인데, 그대는 어디로 가고 있는 거요?”

벽성선 역시 웃으며 말했다.

“밤이 깊고 하늘은 개었으며, 달은 밝고 바람은 맑습니다. 객관 차가운 등불 아래 상공[대감, 양창곡]의 외로운 회포를 위로하려고 왔습니다.”

양창곡이 흔쾌히 웃으며 함께 별당으로 갔다. 달을 마주하고 여러 잔을 마시는데, 벽성선이 술잔을 들고 갑자기 슬픈 빛을 띠는 것이었다.

양창곡이 이상하게 여겨 물었다.

“그대는 무슨 생각을 하는 게요?”

벽성선이 부끄러운 모습으로 한참을 있다가 대답을 했다.

“첩이 청루[기생] 생활 10년 동안 일편단심을 비출 수 있는 곳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 상공을 모시게 되어 울적한 심회를 위로할 수 있었지요. 물 위의 부평초 같은 인연으로는 만남과 이별이 무상[허무]한지라, 이제 밝은 달을 대하니 한번 동글어졌다[양창곡과 벽상선의 사랑] 한번 이지러졌다[양창곡과 벽상선의 이별] 하는 저 달을 한스러워합니다.”[꿈을 꾸니 양창곡과 이별할 것 같아 한스럽다.]

“그대는 내가 일찍 유배에서 돌아갈 것인지 늦게 돌아갈 것인지 어찌 알 수 있단 말ियो?”[양창곡의 현재 상황 - (간신의 모함으로) 유배를 옴]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첩이 지난번 피곤하여 잠깐 잠이 들었다가 꿈을 꾸었습니다. 상공이 푸른 구름을 타고 북쪽으로 향해 가시더군요. 저를 보고 함께 가자고 하셨는데, 홀연 우렛소리가 크게 들리고 벼락이 제 머리를 때리는 바람에 놀라서 깨어났습니다. 이 꿈이 첩에게 불리하기는 하지만, 상공계선 조만간에 반드시 황상[황제]의 혜를 입어 영광스럽게 돌아가실 것입니다.”[꿈의 역할- 앞일을 암시]

양창곡이 머리를 숙이고 생각하다가 말했다.

“이번 달 20일은 황상의 생신이오. 황태후[황제의 어머니]께서는 황상을 위하여 매년 이날을 맞으면 방생지에 물고기를 풀어서 살려 주고 천하에 죄인들을 크게 사면하지요. 그대의 꿈이 허황된 것은 아닌 듯싶소.”

그러자 벽성선이 더욱 놀라며 말했다.

“은혜로운 명령[양창곡의 사면]으로 씻어 낸다면 이 어찌 상공의 영광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한번 이별하면 아득히 뒷기약이 없을 것입니다만, 군자의 대범함으로 마음에 두실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듣자오니, 남방에 어떤 새는 ‘난(鸞)’[벽성선을 비유]이라고 부르는데 자기 짝이 아니면 울지 않기 때문에 그 소리를 듣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거울을 들어 비추어 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난새는 거울에 비친 자기 모습을 보면서 하루 종일 날아 다니며 울다가 기운이 쇠진해져서 죽는다고 하더군요. 제가 비록 청루의 천한 인생이지만 제 짝을 찾기가 어려우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상공을 모시니 마치 꿈인 듯, 거울 속 그림자인 듯 황홀합니다. 그런데 저는 오히려 한번 날면서 울었으니 오늘 죽는다 해도 여한이 없습니다. 이제부터는 산속에 종적을 감추고 스님이나 도사를 따라 자질구레한 모욕을 면해 볼까 합니다.”

양창곡이 웃으며 말했다.

“나는 그대의 뜻을 알지만 그대는 내 뜻을 알지 못하는구려. 나는 이미 뜻을 정하였어요. 근심과 즐거움을 영원히 함께 할 거요. 벽성산 머리의 둥근 달[양창곡과 벽성선의 사랑을 비유]이 우리 두 사람의 마음을 비추도록 하여 평생토록 이지러지지 않겠소.”

벽성선이 고마워하면서 말했다.

“군자의 말씀은 천금과 같습니다. 첩은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 작품해설

해제 : '옥루몽'은 조선 후기에 남영로에 의해 창작된 소설이다. 조선 중기 소설 '구운몽'을 토대로 쓰여졌으며, 중국 소설 '삼국지' 등의 영향을 받았다. 덕분에 이 작품에는 우리 문학의 요소와 중국 문학의 요소가 적절하게 들어 있다. 이 '옥루몽'은 '구운몽'과 유사한 점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주제와 사상에서 차이를 보인다. 이 작품은 유교 사상을 토대로 주인공의 영웅적 행적을 통한 인간의 이상과 염원의 구현을 보여 주며, 현실 개혁의 의지와 방법을 형상화하였다. 또한 신분에 구애받지 않는 사랑을 통해 19세기의 새로운 가치관을 보여 주는 작품이다.

갈래 : 고전 소설, 군담 소설, 영웅 소설

성격 : 유교적, 철학적

제재 : 영웅 양창곡의 일대기

주제 : 양창곡의 영웅적 삶과 부귀영화/유교적 공명 성취를 통한 이상의 완성

특징 :

- ① 영웅의 일대기 구성
- ② '구운몽' 및 '삼국지'의 수용
- ③ 개성 있는 여성 인물의 등장
- ④ 현실 개혁의 방법 및 의지 표현
- ⑤ 방대한 규모, 다양한 소재, 사실적인 묘사가 돋보임.
- ⑥ 다른 고전 소설에 비해 서술보다 대화로 진행되는 부분이 많아 생동감을 줌.
- ⑦ 인물의 성격 창조가 뛰어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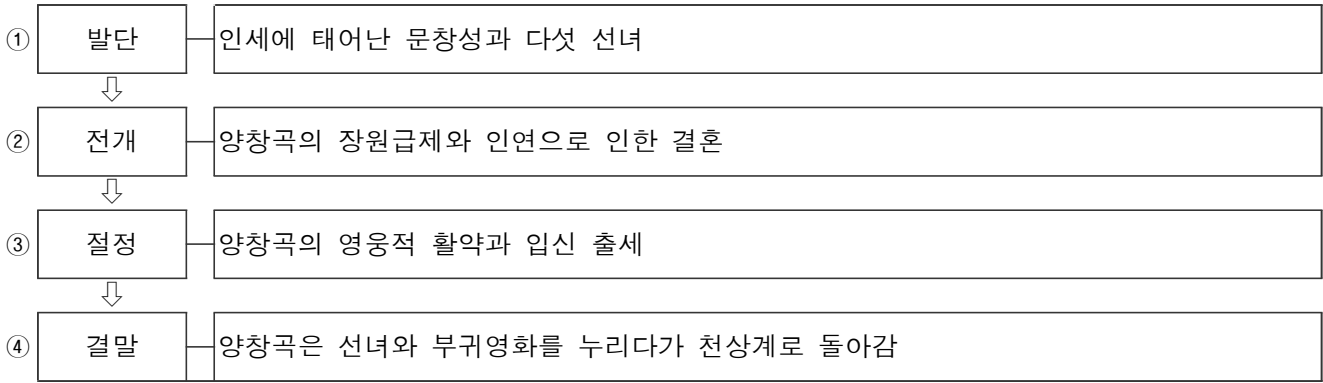
■ 구성

발단 : 천상의 옥황상제가 백옥루를 중수하고 베푼 낙성연에서, 문창성과 다섯 선녀는 시를 읊고 술을 마시며 즐기다 잠이 든다. 문창성과 선녀들은 그 죄로 세존에 의해 인간 세상으로 떨어져, 양창곡, 윤 소저, 황 소저, 강남홍, 벽성선, 일지련으로 태어난다.

전개 : 창곡은 남방 옥련봉 아래에 사는 양 처사의 아들로 태어났다. 16세가 되자 과거에 응시하고자 상경하다가 명기 강남홍을 만나 인연을 맺고, 강남홍은 양창곡에게 항주자사의 딸 윤 소저를 배필로 천거한다. 창곡이 황성으로 떠난 후, 강남홍은 윤 소저의 시녀가 되기를 자원하여 윤 소저와의 우정이 깊어간다. 소주자사 황공이 강남홍의 미모를 탐하여 연회에 불러 희롱하려 하자, 남홍은 투신 자살을 시도하다가 윤 소저의 도움으로 탈출하여, 백운도사를 만나 천문과 검술을 익힌다. 남홍의 자살 소식을 듣고 슬픔에 잠겼던 창곡은 장원급제하고, 강남홍이 추천했던 윤 소저와 결혼한다. 한림학사가 된 창곡은 조정 원로의 청혼을 거절하여, 누명을 쓰고 강주로 유배당한다. 유배소에서 기생 벽성선을 만나 가연을 맺은 창곡은 천자의 생일이 되어 예부시랑을 제수받고 상경하였다. 창곡은 상경 후 천자의 명으로 황 소저와 결혼하게 되고, 유배 중 인연을 맺은 벽성선을 데려온다.

절정 : 남만의 침공이 있어 양창곡이 대원수로 출전하였는데, 남만의 원수는 강남홍이었다. 강남홍은 창곡이 대원수인 것을 알고는, 자신의 진지를 도망하여 양 원수와 만나게 된다. 남만국의 공주 일지련은 생포되었다가 창곡을 보고는 반하여, 부왕에게 가서 항복하게 한다. 회군하던 양 원수는 천자의 명을 받아 다시 홍도국을 정벌하러 간다. 한편 벽성선이 오자, 황 부인은 자객과 탕아를 시켜 벽성선을 곤경에 빠뜨리고, 벽성선은 도망치게 된다. 도망가던 벽성선은 창곡의 부하에 구출되어 창곡과 만난다.

결말 : 창곡은 홍도국 왕의 항복을 받고 회군하여 연왕에 오르고, 남장을 한 강남홍을 후에 봉한다. 황 부인은 벌을 받고 풀려 나고, 연왕이 된 창곡은 윤 부인, 황 부인의 양처와 강남홍, 벽성선, 일지련 등 첩들을 거느리고 화락하게 살면서 영화를 누리다가, 천상으로 올라가서 다시 선관이 되었다.



■ 줄거리

천상에서 살던 신선 문창성과 다섯 선녀는 연꽃을 꺾어 술을 마시며 놀았던 일로 인해 벌을 받고 인간 세계에 떨어진다. 옥황상제는, 문창성은 양창곡, 다섯 선녀는 각각 윤 소저, 황 소저, 강남홍, 벽성선, 일지련으로 태어나게 한다. 한편 명나라의 양현은 뒤늦게 아들을 보게 되어 이름을 양창곡이라 짓는다. 성장한 양창곡은 과거를 보러 가던 중 기생 강남홍과 사랑을 나눈다. 강남홍은 양창곡에게 함주 자사의 딸 윤 소저를 배필감으로 추천하고 자신은 윤 소저의 시녀가 된다. 그러나 소주 자사 황의병이 강남홍을 희롱하려 하자 그녀는 스스로 강에 몸을 던진다. 이를 미리 짐작한 윤 소저가 손삼랑을 시켜 강남홍을 구하지만, 그 둘을 태운 배는 표류하다 남만으로 가게 된다. 강남홍이 자살했다는 소식을 듣고 크게 슬퍼하던 양창곡은 마음을 다잡고 과거에 급제하여 한림학사가 된다. 명나라의 천자는 양창곡에게 황의병의 딸 황 소저와의 결혼을 명하나 양창곡은 윤 소저와 혼인한다. 이 일로 양창곡은 누명을 쓴 채 유배를 가게 되고, 유배지에서 기생 벽성선을 만난다. 그러나 천자의 명령을 계속 거부할 수 없었던 양창곡은 결국 황 소저와 혼인하고 벽성선을 데려온다.

한편 남만으로 간 강남홍은 백운 도사에게 무술을 익히고, 남만의 왕 나탁은 강남홍을 원수로 삼아 명나라로 쳐들어간다. 이에 명나라에서는 양창곡을 대원수로 삼아 남만과 대적하게 한다. 강남홍은 양창곡이 대원수로 출전하였음을 알고 손삼랑과 함께 명나라에 투항하여 부원수가 된다. 남만을 도우러 온 축융국의 공주 일지련은 양창곡을 연모하게 되고, 축융의 왕을 설득하여 양창곡에게 항복한다. 남만을 정벌한 양창곡은 다시 천자의 명을 받아 홍로국을 정벌한다. 천자는 홍로국을 정벌하고 돌아오는 양창곡과 강남홍에게 각각 연왕과 난성후에 봉하지만 조정의 간신들은 양창곡을 비롯한 충신들을 음해한다. 무능한 천자는 간신들의 말만 듣고 양창곡을 유배 보낸 후 방탕한 생활을 즐긴다. 이렇게 문란한 정사로 나라의 재정이 바닥나고 민심이 소란해지자 왜적이 침공해 온다. 간신들은 왜적의 앞잡이가 되어 천자를 위협하지만 유배지에 있던 양창곡과 강남홍 등은 군사를 일으켜 왜적을 물리친다. 뒤늦게 자신의 실책을 깨달은 천자는 간신들을 처단하고 나라의 혼란을 수습한다. 한편 벽성선을 질투하여 제거하려 했던 황부인은 죄가 밝혀져 유배를 떠나나 곧 참회하고 돌아온다. 이로써 양창곡과 다섯 여인은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다가 하늘나라로 올라간다.

이 작품은 전체 64회로 구성되어 있는 회장체 대하 소설이다. 천상계의 선관이었던 주인공이 죄를 지어 인간 세상에 다시 태어나 부귀영화를 누리다는 내용에서 ‘구운몽’과 유사하나 방대한 규모와 정교한 구성, 개성 있는 인물의 형상화, 유려한 문장 등에서 ‘구운몽’을 훨씬 능가하는 고전 소설의 백미로 평가받고 있다. 부패한 지배 계층의 무능함과 혼란한 사회 현실을 날카롭게 비판하고 있어 조선 후기 사회 현실을 개혁하고 왕도 정치를 실현하려는 작가 의식이 잘 드러나고 있다.

■ 참고 자료

▶ ‘옥루몽’에 대한 이해

‘옥루몽’은 ‘옥련몽’을 개작해 만든 작품이다. ‘옥련몽’ 또는 ‘옥루몽’은 사대부 문인이 한문본을 먼저 내놓은 작품이면서 국문본으로도 널리 읽혀 대단한 인기를 누렸다. ‘구운몽’의 설정을 받아들여 더욱 흥미롭게 만들고, 인물 성격 창조가 뛰어나 높이 평가된다. 작가 남영로(南永魯, 1810~1858)가 과거에 거듭 낙방하고 소설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으며, 자기 소실을 위로하려고 ‘옥련몽’을 지었다고 하는 말이 구전되고 있다. 원래 한문본이었는데 소설이 국문의

로 번역했다는 말도 함께 전한다. 과거를 거쳐 벼슬길에 나아가 이루려 한 뜻을 온통 소설을 통해 구현하고자 해서 소설 창작에 힘을 기울이고, 자기 구상과 소설의 관심을 합쳐 인생에 관한 다면적인 이해를 작품화했다고 할 수 있다. 김만중이나 조성기가 어머니를 위해 국문 소설을 지었다고 한 것과 남영로가 소설과 합작해 한문본과 국문본 소설을 공존하게 한 것도 상당한 차이가 있다.

‘옥련몽’만 해도 인기를 누려 마땅한데, 그것을 개작해 더욱 뛰어난 작품 ‘옥루몽’을 이룩했다. ‘옥루몽’도 한문본과 국문본이 공존함은 물론이나 양자 관계를 정확하게 고증할 단서는 없다. ‘옥루몽’은 필사본으로는 14책 내지 18책의 국문본이 여럿 전하고, 활자본으로는 대개 4책인 국문본·한문본·한문현토본이 거듭 출간되어 많이 읽혔다. 여성 인물을 하나씩 따로 독립시켜 ‘강남홍전’이니 ‘벽성선’이니 하는 파생 작품도 나타났다. ‘구운몽’의 뒤를 이어 몽(夢)자 소설이 여럿 나오다가, ‘옥련몽’에서 그 완성판을 보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소설은 천하다고 배격하거나 국내의 소설은 대단치 않게 여기던 한학의 식자층 사이에서도 한문본이 널리 읽혀 중국의 사대기서(四大奇書)와 동급의 작품이 이루어 졌다는 평가를 받았다. 한문 문장력에 대한 평가도 거기 포함되어 있다. 작품 세계를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운몽’과 견주어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구운몽’의 양소유가 이 두 작품에서는 양창곡으로 바뀌었다. 천상의 선관이 세상에 적당해서 양창곡으로 태어나, 사대부로서, 남성으로서 모든 이상적인 조건을 두루 구비하고 벼슬에서 부귀를 성취하며, 여러 여성을 차지해 사랑을 이룩하는 데 조금도 모자람이 없었다고 하는 것으로 ‘구운몽’의 이상주의를 충실하게 이었다. 그런데 불교적인 깨달음은 내세우지 않았고, 부귀와 사랑을 획득하는 과정이 치열한 대결의 연속이게 한 점에서 주목할 만한 변화가 있다. 산촌의 한미한 선비인 양창곡이 조정에 진출해서 권력을 차지하고 횡포를 부리던 세력과 대결하고, 양창곡의 여러 처첩 가운데 기생 출신인 강남홍이 가장 발랄한 개성을 지니도록 해서, 능력 우선의 사고방식을 나타냈다. ‘구운몽’에서 ‘옥루몽’까지 이어지는 일련의 작품은, 한문본을 통해서 남성 독자를, 국문본을 통해서 사대부 여성 독자를 끌어들이면서 문학의 사회적인 층위에서 소설로서는 가장 높은 자리를 차지했다. 사대부에 속하는 작자와 독자가 중세적인 이상주의를 재확인하면서도 현실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인식하는 여유를 가지고, 소설이 새로운 시대의 문학으로 등장하는 추세를 따를 수 있었던 것을 보여 준다.

-조동일, ‘한국문학통사’, 지식산업사

▣ 중국을 배경으로 한 고전 소설 작품이 많은 이유

조선 시대 사대부들은 대개 소설을 허황된 것으로 비판했는데 중국을 배경으로 하면 이러한 비판에서 어느 정도 비껴갈 수 있었을 것이다.

번역이라든가 외적에 의한 당대 현실에 대한 비판과 같은 민감한 문제의 경우 중국을 배경으로 하면 작가가 책임 문제 등에서 벗어나 상상력을 발휘하여 자유롭게 내용을 전개해 나갈 수 있었다.

중국은 지리적으로 넓을 뿐만 아니라 대다수 사람들에게 미지의 세계이므로 독자들의 흥미와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데 유리했다.

▣ ‘양창곡’과 ‘강남홍’의 인물형

양창곡 : 시서에 능하고 풍류를 즐기면서도 충효와 인의를 중시하는 이상적인 영웅이다. 반전을 거듭하는 흥미진진한 사건 전개 속에서 선계에서 만났던 다섯 선녀를 다시 만나 결정적인 순간에 도움을 받으며 차례로 결연하게 된다. ‘구운몽’의 성진과 달리 인간의 부귀영화와 입신 출세를 긍정하는 적극적 인물이다.

강남홍 : 미모와 재주, 절개와 문무의 능력을 겸비한 인물로 조선 후기 남성과 여성의 욕망과 꿈이 반영된 이상적인 인물이다. 기생의 신분으로 태어났지만 굳은 절개를 지키며 자신의 뜻에 맞는 남성인 양창곡을 선택하여 사랑을 이룬다. 또한 전쟁터에서는 남장을 하고 신출귀몰하는 활약을 펼쳐 마침내 제후의 지위에 오르는 여성 영웅이다.

▣ ‘옥루몽’의 특징

이 작품은 64회의 회장체(回章體)로 된 소설로서, ‘구운몽’ 분량의 3배나 되는 대장편이다. 조선 후기에 가장 많은 인기를 모은 소설로서, 구성이 치밀하고 규모가 방대하며 표현력이 빼어날 뿐 아니라 여성들의 성격이 아주 개성 있게 창조되어 있어서, 고전 소설 가운데 백미(白眉)라고 할 수 있다.

▣ ‘옥루몽’의 작가 의식

도가의 신선 세계를 상징하는 ‘옥루(玉樓)’를 제목으로 삼은 데서도 알 수 있듯이, ‘옥루몽’의 중심 내용은 이상 사회

를 구현하려는 주인공들의 열망과 도전이다. 세도 정치와 당쟁, 매관매직, 비리 투성이의 과거 제도 등 부패가 만연했던 19세기 조선 사회에서 살았던 작가 남영로는 환몽과 현실을 넘나드는 환몽 구조를 빌려 당대를 비판하였던 것이다.

■ ‘옥루몽’이 당시에 인기를 끌었던 이유

- 이상적인 인간형의 주인공 남녀가 결연하는 이야기를 중심으로 하고 있다.
- 간신과 총신의 대결,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는 전쟁담이 방대한 스케일로 전개된다.
- 뛰어난 성격 창조로 각각의 개성 있는 인물들이 살아 움직이고 있다.
- 당대 사회 현실을 비판하는 동시에 현실 개혁의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 삽입된 시, 상소문 등이 격식을 갖추고 있어 재미와 교양을 주고 있다.

■ 플러스 활동

1. ‘옥루몽’처럼 중국을 공간적 배경으로 한 작품이 나타난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보자.

→ 조선 시대 당시 동아시아의 보편적인 문화는 중국 문화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었다. 한자는 물론이고 정치 제도 등이 중국의 제도를 기반으로 형성되었다. 소설 등 문학 작품도 중국의 작품들이 다양하게 수입되어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쳤다. 우리 소설은 이런 보편적인 문화 속에서 형성되었고, 때문에 배경도 자연스럽게 중국으로 설정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조선 후기 사회는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 정치적으로 지배층의 부패가 만연해 있었다. 그리고 간신들에 의해 문란한 정치 풍토가 일반 백성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고 있었다. 사회적으로 남성 중심적인 사회였기 때문에 여성이 가진 사회적 질곡은 매우 폭압적이었다. 이런 문제적 상황을 직접 비판하고 개혁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때문에 이 당시의 소설은 표면적으로 조선과 거리가 있는 중국(명나라)을 배경으로 조선의 문제적인 상황들을 이야기하려고 했다. 그래서 지배층의 검열에서 피하면서 자신들이 하고 싶은 말들을 하고자 했다.

2. ‘전체 줄거리’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조선 후기의 사회 현상이 반영된 부분을 찾아보자.

<p>지배층의 무능과 타락상 비판</p>	<p>조선 후기에는 매관매직이 흔하게 이뤄졌다. 이 때문에 무능한 관리가 많아졌고, 사리 사욕에만 얽매인 무능한 관리들 때문에 백성들의 삶이 힘들어졌다. 그리고 중앙 정부는 외척 세력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상황이었다. 때문에 올바른 정치가 이뤄지지 못했다. 이런 현실은 ‘옥루몽’의 현실과 비슷하다. 천자는 남만과 홍로국을 정벌한 양창곡을 비롯한 총신들을 음해하는 조정의 간신들의 말만 믿고 양창곡을 유배 보내고 간신들과 음란한 생활을 한다. 이처럼 총신과 간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천자나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간신들의 모습은 조선 후기의 사회상과 비슷하다. 작가는 이를 통해 조선 후기의 사회상을 비판하고자 했던 것이다.</p>
<p>고착화된 신분 질서 및 남성 중심의 사회 비판</p>	<p>강남홍은 양창곡을 사랑하지만 기생 신분이었기 때문에 그와 결혼하지 못하고, 양반 가문의 윤 소저를 양창곡에게 소개하고 양창곡이 그녀와 결혼하기를 바란다. 더불어 강남홍은 기생이라는 이유로 소주 자사에게 희롱을 당하고 자살을 택한다. 이 부분에서 고착화된 신분 질서를 가진 조선 사회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강남홍은 여성이면서 전쟁에 참여하여 많은 공을 세운다. 하지만 강남홍은 당시에 여성이 전쟁에 참여할 수 없었기 때문에 남장을 하고 전쟁에 참여한다. 하지만 강남홍은 남성보다 능력이 뛰어나서 나중에 그 공을 인정받는다. 이처럼 이 소설은 강남홍을 통해 견고한 신분 질서의 문제와 남성 중심 사회의 모순된 면을 드러내고 이를 비판하고 있다.</p>

3. 강남홍과 같은 성격을 지닌 여성이 등장하는 우리 고전 소설의 예를 찾아보고, 어떠한 점에서 비슷하다고 생각했는지 말해 보자.

→ 강남홍과 같은 성격의 인물은 조선 후기 역사 군담 소설 ‘박씨전’의 박씨를 들 수 있다. 박씨는 병자호란이 일어나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천부적인 재능으로 적장 용홀대와 용골대를 무찌른다. 당시 정치 및 군사를 담당하고 있던 대부분의 남성들이 무기력하게 청의 군사들에게 패하고 굴복하지만 박씨는 자신이 만든 피화당을 공격하는 용골

대를 무찌르고 소극적으로나마 항복을 받는다. 비록 여성이지만 적극적으로 대항하여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한 것이다. 이런 점은 '옥루몽'의 강남홍과 닮았다고 할 수 있다.

4. 양창곡과 강남홍의 성격을 정리해 보자.

양창곡의 성격	강남홍의 성격
<p>양창곡은 자신의 임무에 솔선수범하는 성격이다. 그래서 원수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자신의 부하들이 강남홍에게 패하자 직접 싸움에 나가려고 한다. 더불어 강남홍과의 싸움에 몰두하여 강남홍의 존재를 알아차리지 못한다.</p>	<p>강남홍은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남성을 압도하는 무술 실력을 가지고 있다. 그녀의 장부다운 성격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다. 더불어 전쟁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적장이 양창곡임을 알아볼 만큼 섬세하고, 양창곡을 위해 위험한 적진으로 찾아가겠다고 할 만큼 적극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p>

■ 참고

'옥루몽'의 다양한 서사 양식						
적강 소설	환몽 구조	영웅 소설	군담 소설	여걸 소설	가정 소설 (염정 소설)	지식인 소설
천상계와 인간계의 공존	전체적으로 '구운몽'과 동일한 회귀 구조	영웅적 인물 양창곡의 입신 출세와 부귀영화	반란의 진압과 전쟁의 승리	강남홍의 활약	남녀간의 애정과 처첩간의 갈등	부조리한 현실을 비판하고 정치적 대안 제시